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研究調查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周邊還境與件

東北亞에 있어서의 4強의 軍事均衡 關係

研究執筆責任

崔

榮



(略歷) 서울大學校 文理大 政治學科卒(1958)
서울大學校 大學院 政治學科卒(1965)
서울大學校에서 政治學 博士(1977)
國防大學院 教授(1969~現在)

刊行責任

金

炳

璘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1. 東北亞에 있어서의 美·蘇·中共의 戰略	3
가. 美國의 對東北亞戰略	3
(1) 美國의 對東北亞政治戰略	3
(2) 美國의 對東北亞軍事戰略	6
나. 蘇聯의 對東北亞戰略	12
다. 中共의 對東北亞戰略	13
2. 4強의 相互力學關係	17
가. 韓·美·日軍事協力關係	17
나. 美·中·蘇關係에 있어서의 힘의 均衡	30
- 中·蘇對立을 中心으로 -	
다. 最近의 中·蘇·北韓協力關係現況	37
3. 北方3角關係에 대한 美國의 衝擊(假定)	39
4. 駐韓美軍撤収와 4強의 軍事均衡關係의 展望	42
가. 駐韓美軍撤収論의 論調	42
나. 駐韓美軍撤収의 目的과 그 影響	46
다. 韓半島의 安全과 4強의 軍事均衡關係의 展望	54
※ 要約文	62

1. 東北亞에 있어서의 美·蘇·中共의 戰略

가. 美國의 對東北亞戰略

(1) 美國의 對東北亞政治戰略

現在의 美國의 對外政策은 共產圈과의 緊張緩和와 同盟諸國과의 協調를 基本으로 하여 展開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하여 世界의 安定을 기도함과 동시에 國家利益의 確保와 自由의 擁護에 努力하고 있다고 看做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政策의 基礎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전히 「힘의 存在」이다. 美國의 對아시아政策도, 이 世界政策의 틀속에서 規定되고 있다.

美·日·中·蘇의 利益이 交叉하는 東北아시아地域의 安定은, 이들 4極의 밸런스에 의해 成立되고 있으며, 이 밸런스를 維持하는 것이 美國이 當面한 對東北亞政策의 基本이라고 생각된다.

포오드前大統領은, 大統領在任中の 1975年 12月, 太平洋독트린을 發表했는데, 이 中에서 「美國은 太平洋國家로서, 아시아에 死活的인 利害關係를 가지고 있으며, 緊張緩和, 戰爭行爲의 防止 및 平和維持에 主導的인 役割을 履行할 責任을 갖고 있다」고 敘述함과 아울러, 아시아에 대하여, 美國이 積極的인 關心을 갖고 있는 것과, 이 地域에 대한 「프레젠스」를 維持할 것을 分明히 하고 있다.

아시아地域은, 確實히 美國에게 있어서 價值있는 地域이지만 이

때까지의 美国側의 發言들을 綜合해 보면, 이 독트린에서 말하고 있는 「死活的인 利害關係를 갖는 地域」에 대해서는, 보다 더 細部的으로 檢討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즉, 우선 아시아는 美国에게 있어서는 西歐에 비해서 次等의 價値밖에 없다. 이것은 西歐와 美国간의 歴史的, 民族的, 文化的, 經濟的 關係등의 密接한 連繫를 생각하면 當然한 것이다.

또한, 도미노理論에 따라, 越南에 介入한 美国은, 그 失敗에 수반하여, 아시아地域의 價値에 대하여 再評價하고 있으며, 美国에게 있어서 重要的 地域은 大陸이 아니라 東北아시아로 옮겨지고 있다.

그리고 現在, 美国은 嚴密한 意味에 있어서의 死活的인 利害關係를 갖는 地域은 「日本」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으며, 다른 地域은 美国의 國家利益에 있어서 一般的인 價値에 不過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美国은 日本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가장 重要的 同盟國이다. 日本과의 友好 協力關係는 美国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利益과 政策의 초석이다」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日本이 重視되고, 死活的인 利害가 있는 地域으로 간주되는 理由는 日本이 中共 或은 蘇聯의 陣營에 들어가게 되면 이 地域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美国에 대한 直接的 威脅이 현저하게 增大하게 되기 때문이다. 즉, 美国은 이 地域의 밸런스가 維持되고 있는 限, 아시아-太平洋方面으로부터의 威脅을 防止할 수 있으며, 自國의 安全을 確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日本의 귀추가 중대한 意義를 갖는 것은, 그 地理的 位置뿐만 아니라, 高度의 科學技術, 工業力, 經濟力과 一億을 넘는 人口의 存在 때문일 것이다.

카터大統領은 「日本에 대한 安全保障의 公約은, 美國의 安全과 不可分の 關係에 있으며, 日本이 이것을 바라는 限 維持한다」고 叙述하여 日本의 安全을 重視하고 있다.

한편 美國에서는 日本의 国力이 增大됨에 따라 日本에 대하여 對等한 關係(특히 經濟面)를 希求하여, 国力相應의 對外的 責任을 이행할 것을 要求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음으로, 對韓關係에 관해서는 美國은 이때까지 韓國에 兵力을 駐屯시킴과 아울러, 軍事·經濟援助를 수행하여 安全保障上의 公約의 유지를 거듭 表明해 왔다.

특히 재작년의 越南붕괴直後에는 核使用도 不辭한다는 強力한 態度를 表示했다.

그러나 이러한 對韓政策에도 그 基本에 變化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從來는 韓國 그자체를 自由陣營의 第一線으로서 重視하는 傾向이 強力했던 것과는 달리, 最近에는, 「韓國의 安全은, 重要한 日本의 安全을 確保하기 위해서 必要하다」라고 하여,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서의 附隨的 價值밖에 韓國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傾向이 있다.

美國에게 있어서는 韓國에서 발판을 상실해도 「日本」이라고

하는 防波堤가 아직 存在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地域은, 다시 美國은 아시아의 紛爭에 말려들게 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美國으로서는, 當分間은 公約을 維持하여 처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將來는 어떠한 形態로든, 이 地域의 不安定狀況을 緩和하는 「틀」을 만들어, 軍事的으로는 可能的 限 빨리 손을 떼고 싶은 것이 원 속셈이라고 생각된다.

美國이 提案하고 있는 「韓·美·中·北傀의 4 個國으로 現在의 休戰協定에 대체할 協定을 만들어, 다시 여기에 日·蘇등을 追加한 擴大會議에 있어서 保障措置를 강구한다」고 하는 構想도, 美國이 韓國에서 손을 뗄 環境을 만들고자 하는 一措置라고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美國은 단적으로 말해서, 「韓半島의 紛爭을 防止하고, 또 紛爭이 일어 날 경우, 여기에 말려들지 않을 것」을 겨냥한 政策을 追求하고 있는 것 같다.

(2) 美國의 對東北亞軍事戰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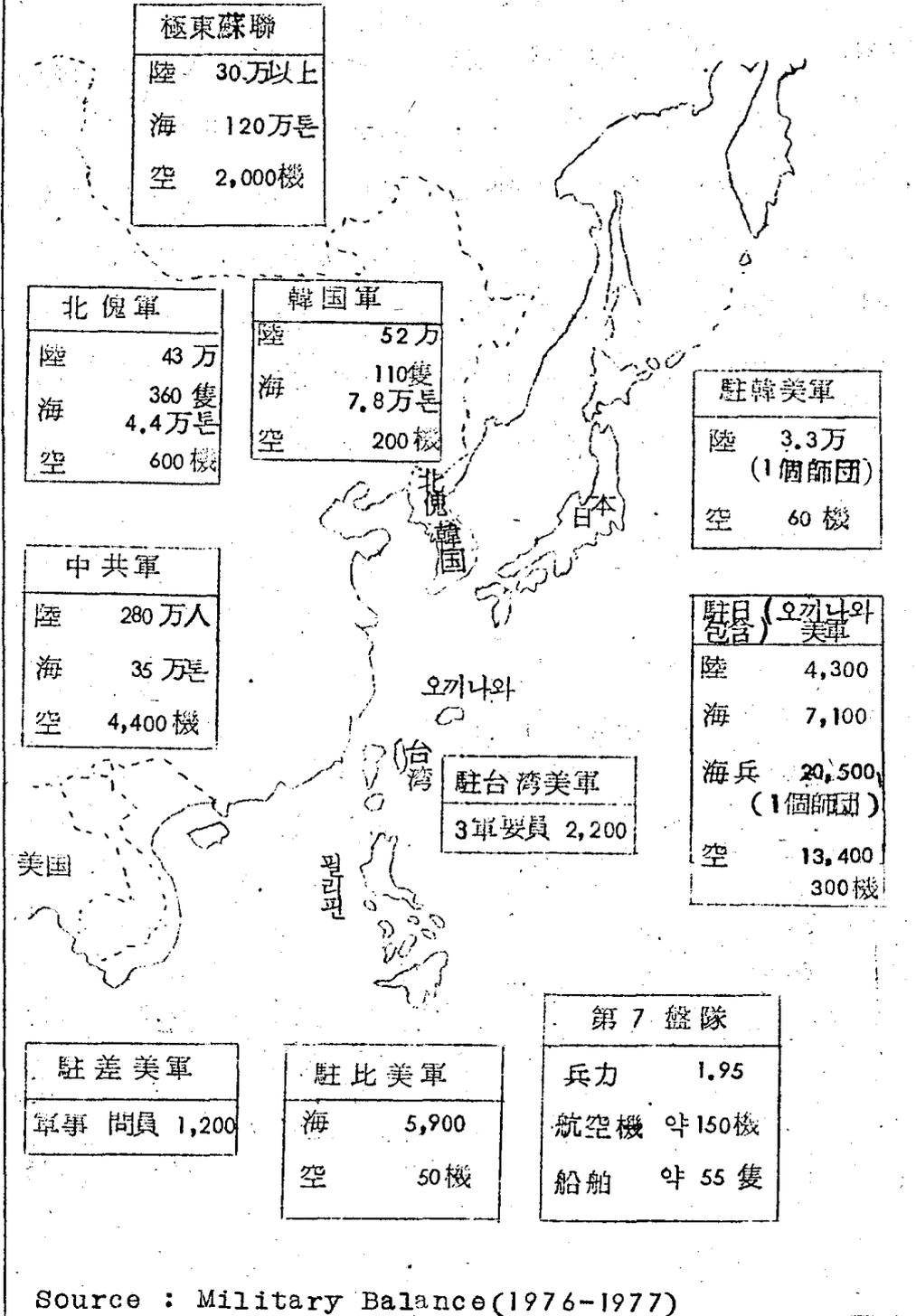
美國의 軍事戰略의 基本은 對蘇戰略이며, 最終적으로는 美·蘇의 全面戰爭을 抑止하는데 있다.

아시아·太平洋에 있어서의 各國의 軍事態勢는 <表 1>과 같으며, 美國에 대한 威脅은 蘇聯, 특히 增強一路에 있는 海軍力이다.

美國은 아시아에 대한 軍事戰略의 基本目標로서,

첫째: 繼續 東北아시아地域의 安定된 軍事的·政治的 밸런스의 維持

<表1> 아시아地域の 軍事態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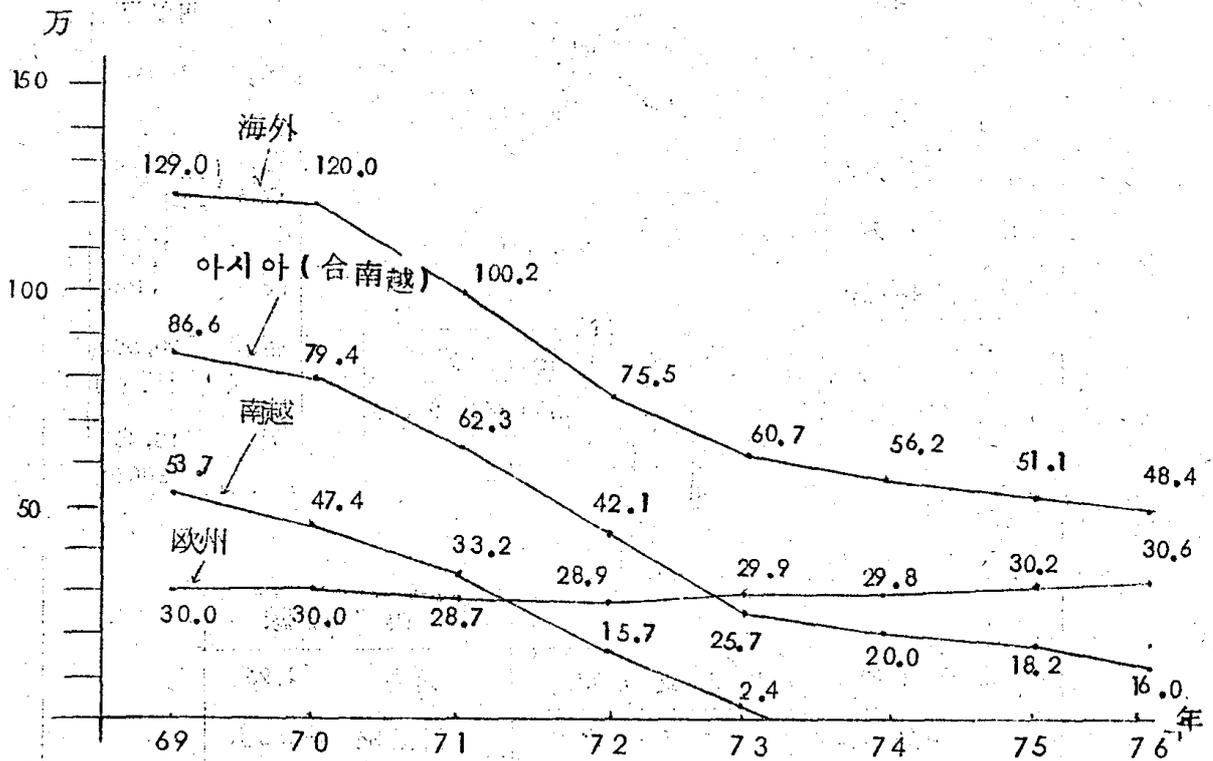
Source : Military Balance(1976-1977)

둘째: 아시아地域의 安定의 促進 및 明白한 侵略의 抑止
등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 地域에 前方展開戰略의 一環으로서 陸軍을 韓國, 하와이
에 各各 1個師團, 空軍을 韓國, 필리핀, 오키나와에 各各 約 1個師
團, 海兵隊를 오키나와에 1個師團, 그리고 航母 2隻을 基幹으로
한 第7艦隊등 計 約 18萬의 兵力을 展開하고 있다.

그러나 財政的인 制約을 받아, 그리고 世界의 警察官으로서 美國民
의 生命을 犧牲하는데 대해서 反省한 美國은 「人力提供의 第1次的

<表2> 美軍海外兵力의 推移 (1976.6)



責任은 当事國에 있다」는 肯·독트린 (1969年) 및 닉슨, 독트린 (1970年)을 明白히 합과 아울러, 70年代의 戰略으로서, 「美國 및 自由同盟諸國의 모든 힘과 資源의 效果的 統合을 겨냥하는」, 이른바 總合戰力 (Total Forces) 構想을 採択하고 있다.

이에 따라 美國은, <表2>와 같이 아시아地域에서 大幅的으로 兵力을 撤収하여 69년부터 73年の 越南撤収 完了까지 약 63萬, 그後부터 77年 1月 現在까지 約 7萬의 兵力을 撤収하고 있다.

이 사이에, 駐歐美軍의 兵力에는 거이 變動이 없으며, 美國이 軍事戰略上 重視하는 正面은, 역시 - 歐州이며, 아시아地域에선 더 兵力이 削減될 것이다.

日本에 對해서는, 美國은, 「日本과의 防衛條約은 重要하며, 一方的으로 駐日基地를 縮小하여, 駐日美軍의 相當한 數를 撤収하게 되면 安保條約의 義務履行에 疑心을 갖게 되어, 日本의 美國離脫을 초래 或은 日本의 核裝備와 本格的 再軍備를 招來할 우려가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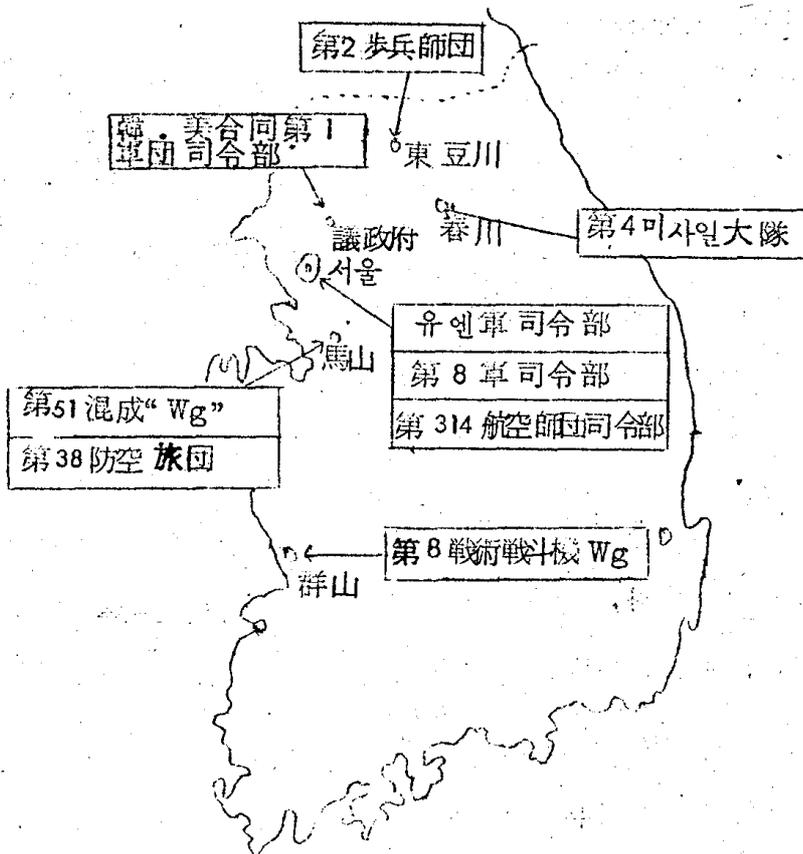
더우기 駐日基地는 美國에게 있어서는 日本을 붙들어 뭇 政治的 意味가 있을 뿐만 아니라, 純 軍事的으로 보아도 價值가 있다.

왜냐하면, 日本은, 宗谷, 津輕, 對馬의 3海峽을 制壓하여, 蘇聯의 海軍力을 封鎖하는 地理的 位置를 차지하는 以外에도, 高度의 科學·技術力을 背景으로 하는 이 地域은 近代軍에 있어서는 後方面에 있어서도, 참으로 重要하며, 아시아에 있어서는 日本만이 이것을 充足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駐日美軍兵力(오키나와를 包含) 도 69年의 8万4,000에
 서 이 7年間に 約 3万2,000이 削減되었다.

駐韓美軍은 69年의 約 5万5,000에서 過去 7年間に, 1万3,000
 이 削減되었다.

<表 3> 駐韓美軍의 配置



現在의 配置는 <表 3>과 같은데, 駐韓美軍은 韓國軍의 戰力을 增強, 戰爭抑止力이 되어 있는 外에 韓國經濟에도 貢獻하고 있다.

美國防總省도, 駐韓美軍의 存在는 韓國에 대한 支援의 証拠이며, 北傀에 대한 抑止力, 中·蘇의 對北傀支援을 抑止하는 效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駐屯部隊의 참된 役割은 有事時의 介入보다도 「戰爭의 抑止」 쪽에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美國으로서는, 部隊를 駐屯시켜서 紛爭을 抑止할 必要는 認定해도, 紛爭에 自動적으로 말려 드는 것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이 때문에 休戰線에서 불과 約 20킬로미터의 東豆川에 位置하고 있는 美第2步兵師團은 美國이 介入與否를 檢討하기 以前에 美國을 紛爭으로 말려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여 그 位置가 문제되고 있다. 이 點, 烏山과 群山에 位置하는 美空軍은 休戰線에서 隔離되어 있기 때문에 介入의 時間余裕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韓國에 配置되어 있는 戰術核에 대해서는 美國은 「核抑止의 一環으로서 抑止力의 機能에 重點이 있다」고 간주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 抑止效果에 대해서는 疑問도 있으며, 오히려 核戰爭에로의 擴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意見도 적지않다.

카터大統領이 戰術核撤収에 대해서 強調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理由에서 연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나. 蘇聯의 對東北亞戰略

蘇聯의 對東北亞戰略은 一次的으로 「美·蘇平和共存의 協力關係」에서 스크린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當面한 主敵=中共」을 包圍하는 戰略線上에서 考察될 일이다. 東北亞라는 地域에서 焦點의 對象이 되는 것은 對中共關係이므로 對中共牽制策의 一環으로 東北亞가 浮刻되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對中共牽制策인 日·蘇平和條約締結推進問題와 蘇聯의 對東北亞戰略은 깊은 連관을 맺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日·蘇平和條約締結을 기대하는 軸에서 볼 때 蘇聯은 中共의 對北傀影響度를 可及的 牽制하여 最小限 北傀의 對蘇·對中共 等距離外交姿勢를 굳히고자 할 것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 日·蘇간의 對話속에서 日本의 對北傀接近을 더 促進시켜 줄 要因의 하나로 登場케 될 우려가 있다.

蘇聯이 北韓을 刺戟하면서 까지 韓國과의 交流를 推進할 可望은 보이지 않으나 南·北韓의 현상위치도에서 명실상부하게 韓國이 勝勢를 견지한다면 最小限 北韓의 對南戰略遂行에 대해서 「一定한 條件」¹⁾의 不創出을 들어 蘇聯이 制動을 걸려고 할 것이다. 이것이 結局 韓半島에 있어서 蘇聯의 利害에 「밸런스쉬트」를 提供하는 가장 合理的인 方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具體的인 空間的, 地域的인 範圍의 限界」²⁾라는 因子가 韓半島에 있어서 蘇聯의 利害關係에 如何히 「세팅」되어 나가는가 하는 問題는 全的으로 韓國스스로의 国力伸張에 달려 있다고 본다.

요컨대, 韓半島에 있어서의 蘇聯의 利害 그 「밸런스 쉬트」
는 當事者인 南北韓이 決定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 點 韓半島의 4強關係라는
論理는 그대로 「韓半島內的 狀況」이라는 論理로 直結되어 나간다.³⁾ 레이몽 아롱 教授의
말을 빌 必要도 없이, 韓半島를 둘러싼 美·日·中·蘇 4強은 서로
눈치만을 살피는 対応型으로 처져 버렸다.

「主導型에서 対応型으로의 姿身」을 直視하면서 이제 南北韓이
造成하는 「韓半島內的 狀況」이 더욱 클로스·업 되어 간다.

따라서 國際關係論的 次元一辺倒의 考察은 美·蘇平和共存体制의
死角地帶出現을 說明할 수 없으며, 內戰의 性格과 民族主義 에토스의
政治戰略化問題등에 대해서 有効適切히 対応措置를 강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蘇聯의 全地域的인 規模에서의 世界戰略이건 東北亞에
있어서의 外交姿勢이건, 그것의 基本志向性을 分析하기 위해서는 역
시 「美·蘇平和共存의 協力關係+條件附暴力革命支援方式」의 相互應
着關係性⁴⁾을 有機的으로 結合하여 考察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認
識論이 基盤이 된다면, 「사이공의 寂寞」은 說明이 可能하며, 더
나아가 蘇聯의 對東北亞戰略도 客觀的·科學的으로 檢証이 容易해질
수 있다.

다. 中共의 對東北亞戰略

美·中共간의 政治的 和解라든가 日·中共國交正常化등이 長期的
인 戰略的 「비전」面에서는 對蘇牽制라는 次元에서 그리고 短期的인

戰術的 「마누 버링」面에서는 国内經濟建設의 需要對象國創出이라는 立場에서 나온 것이라면⁵⁾ 또한 林彪事件이 미스테리로 그치지 않고 中·蘇 對立關係라는 「外在的 要因의 內在化現象」에서 理解가 된다면 앞으로의 中共外交는 從來에도 그랬듯이 「革命的 宣傳」의 象徴操作은 表面的으로는 되풀이 될 것이나, 그 實狀에 있어서는 基本的으로 行動化·具體化시킬 処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⁶⁾ 10全大會의 權力構造에서도 立証되었듯이 革命志向性因子(R-factor)는 現實主義政策因子(P-factor)와 抱擁關係에 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次元에서 「周恩來디자인」은 여전히 重要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中共外交의 向方은 불가불 毛沢東의 「五·二〇指示」⁷⁾와 이 指示에 立脚한 「革命的 現實主義外交」理論을 採択하여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75年 4月의 金日成訪中時 鄧小平이 취했던 態度가 이것을 立証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75年 9月 26日 第30次 유·엔總會에서 行한 喬冠華의 강경한 演說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구구한 解釋이 可能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推測은 합당한 것 같다. 「韓國을 後援하는 美國의 키신저國務長官이 <두개의 韓國>을 두둔하면서 強硬하게 나온以上 北韓後援國인 中共도 그 만큼 相對的으로 強硬해야만 한다는 것이 喬冠華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強硬히 맞서 北韓을 두둔해 보았댔자 그것으로 당장에 <하나의 韓國>이 이룩되는 것이 아님을 中共은 즉히 알고 있는 処地다.

말하자면 中共이 現時点에서 바라고 있을 것으로 推測되는 韓半島에
서의 現狀維持는 最小限 可能的한 것이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하
나의 韓國> 支持라는 名分을 쥐고 歲月을 기다리면 언젠가는 有利
한 局面이 展開될 것으로 予想하면서 中共은 키신저가 提案한
<두개의 韓國>을 拒絶하기에 이르른 것 같다. 事實上 韓半島問
題는 歲月을 두고 기다리면 有利해 진다고 하는 것이 中共의 基
本的인 認識이다.」⁸⁾

바로 이 認識論이 問題의 焦點이 된다. 즉 「革命이 戰爭을
制裁」한다는 체제는 上述한 「五·二〇指示」의 基本內容이며, 이것
의 對外的 表現이 「鄧小平·金日成共同聲明」귀절에 包含되어 있으
며, 또한 喬冠華의 강경한 演說에 상세하게 開陳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對韓半島戰略 더 나아가 對東北亞戰略은 基本的으
로 이 毛沢東의 「五·二〇指示」에 따르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다리면 有利해 진다」, 「革命이 戰爭을 制裁한다」는
一聯의 캐치, 프레이즈는 實은 中共의 傳統的인 「持久戰略」에서
연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空間을 組織하여 時間을 形
成하고, 時間을 組織하여 政治思想工作의 果實인 意志를 形成하라」
는 그들의 大衆工作路線(이 경우 軸이 되는 것은 「時間」이라고
主張하고 있음)에서 볼 때,⁹⁾ 中共의 對韓半島戰略 더 나아가
對東北亞戰略은 窮極的으로 國際關係論的 次元에서 觀察하는 美國·日
本の 極東戰略을 空洞化하기 위하여 「民族當事者끼리」라는 口號를
내 세워, 「民族内部問題化」하는 方向에서 設定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의 「아시아의緊張緩和構造의非制度化・非安定性」을 中共도 外面할 수 없는 現實狀況에 있다. 적어도 인도차이나의 「半島的 狀況論理」를 그대로 서울에 適用시키고자 할 때 따르는 여러가지 難點——특히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專斷的 影響力行使라는 難點——을 中共外交政策決定權者들은 知悉하고 있으므로 그 外交行態는 이른바 「民族内部問題」라는 方向으로 불고 가 언필칭 北韓의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을 積極 支援하는 姿勢에서 對韓半島戰略을 展開해 나갈 것이다.

上述한 內容을 綜合하여, 中共의 對東北亞戰略을 測定하는 分析指標을 整理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가 될 수 있다.

- ① 「鄧・金共同聲明」에서 表出된 革命的 外交路線——「戰爭可避・革命不可避論」(毛沢東의 五・二〇指示)
- ② 周恩來디자인에 따르는 現實主義的 어프로치
- ③ 對蘇牽制를 위한 美國이라는 지렛대——戰略的 實利와 戰術的 需要의 相關關係
- ④ 韓半島問題를 日本問題의 範域에서 「세팅」
- ⑤ 南北韓當事者의 民族内部問題라는 角度에서의 第3世界論

그리고 이 다섯가지 分析指標의 論理는 「革命志向性因子+現實主義政策因子의 有機的인 癒着關係」라는 概念函式에 依存하고 있는 것이다.

2. 4 強의 相互力學關係

가. 韓·美·日軍事協力關係

(1) 韓·美軍事協力關係

韓·美關係는 歷史的으로 1882年 兩國간에 友好通商條約이 締結되므로써 最初의 公式關係로 出發되었다고는 하지만 2次大戰의 終結以前까지만 해도 兩國간의 利害關係는 別로 두드러진 바 없었던 것이 特徵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意味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韓·美關係는 日本 또는 中國이라는 프리즘의 投影을 통해서만이 意義가 認定되는 것 처럼 보이기도 한다.

아ולם 韓·美兩國간의 直接的인 깊은 關係는 主로 2次大戰 直後부터이며 특히 軍事的 側面에 국한할 경우는 1954年 韓·美條約을 中心으로 하는 一聯의 軍事條約體系가 그 骨幹을 이루는 것이다.

한편 初期 美國의 對韓政策과 이의 基礎가 된 當時 韓國軍事情勢에 대한 判斷은 1947年 9月 트루만大統領에게 提出된 웨드마이어報告書에 仔細하거니와 이것은 當時뿐만 아니라 그 後 繼承된 美國의 韓半島政策의 基礎가 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重要 參考가 될 余地가 있으리라 判斷된다. 특히 美國이 아시아大陸에 領土的 野心이 없는 限 韓半島에서 발목을 잡히지 않으려는 立場은 窺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간주 될 수 있다. 1969年 7月에

宣稱된 광독트린은 말하자면 아시아에 있어서 從來와는 달리 軍事行動을 포함한 모든 側面의 自由選擇權을 確保하겠다는 表示인데 韓國만은 여기서 除外된다는 一部 人士들의 해석, 평가 및 聲明과는 달리 이 宣稱과 함께 韓國으로 부터 美第7師團을 撤収시키므로써 事實上 가장 먼저 適用된 地域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비록 規模는 縮少되고 象徴的이긴 하지만 美地上軍이 아직도 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理由는 말할 나위 없이 日本 때문인 것이다.

만일 韓國이 赤化된다면 日本이 취할 수 있는 政策은 두가지인데 即, 첫째는 共產國家인 蘇聯 및 中共과 友好關係를 맺으려 할 것이며 이렇게 되면 美國의 太平洋防衛線은 淸島까지 後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둘째는 日本의 軍事力增強이다. 이렇게 될 때는, 다시 美·日이 競爭相對로 變하기 때문에 美國의 國家利益에서 본다면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며 더우기 日本이 世界的 工業國家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런 점은 1975年 12月 7日 포드大統領의 새로운 對아시아·太平洋政策方向을 밝힌 퍼시픽 독트린 가운데서 “日本과의 同僚關係는 美國戰略의 주춧돌이다. …………… 美國은 日本 및 다른 先進工業國들과 함께 經濟政策을 調和하는 보다 나은 手段을 開發하기 시작했으며…………” (第2項) 라고 한 것이나 또는 “韓半島에서의 緊張은 繼承되고 있다. 美國은 韓國과 緊密한 關係를 갖고 있으며 韓半島에서의 平和와 安保에 繼承 寄與할 것이다” (第5項) 고 한 表現을 통하여 잘 드러나고

있다.

이와는 对照的으로 世界戰略的 次元에서의 韓半島의 重要性이 강조되고 있는 面도 없지않다. 1975年 2月에 刊行된 美國防白書에서 술레신저가 適切히 表現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東北아시아는 美·蘇·中共 및 日本의 利害關係가 교차되고 있는 地域이기 때문에 集團安保의 觀點上 繼續 重要한 地域이 될 것”이며 東北亞에서의 美國의 主拠點은 南韓에 있고 이는 오키나와駐屯軍의 뒷 받침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韓國의 重要性은 아시아全般에 대한 問題와 關聯지을 때 그 意義는 더욱 커진다. 술레신저는 여기서 유럽에 危機가 일어날 경우 美國이 아시아에서 가지고 있는 主要目標을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 즉, 첫째로 다른 아시아國家들에 의한 冒險을 抑止하는 것. 둘째로 아시아에 展開되어 있는 軍事力이 우탈山脈의 西쪽으로 移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셋째로 하와이, 캘리포니아 및 워싱턴 諸州에 있는 機動打擊部隊와 함께 韓國 및 오키나와에 展開되어 있는 美軍이 그러한 目的을 達成하는데 方便이 된다는 것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는 韓國의 戰略的 重要性이 크게 강조되어야 하나 實際로는 그 位置와 評價에 있어, 極히 流動的이며 論者에 따라 그리고 視角에 따라 相當한 差異를 보이고 있어 우리의 關心을 끌고 있는 것이다.

여하튼 韓·美關係는 이제 그 어느때 보다도 크게 浮刻되고 또 자주 論議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公式的으로는 美國의 對韓公

約은 不變이다. 이것은 75年度 韓·美年例安保協議會 共同聲明에서도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最近까지도 이와 같은 公約의 確固不動性은 여러모로 再確認되고 있는 狀況에 있다.

그러나 韓國과 같은 特殊한 條件下에 있는 나라에게는 不變性의 再強調 즉 原則論의 反復보다는 方法上의 變化가 크게 問題된다. 다시 말하면 美國이 韓·美關係를 어떻게 分析·評價하고 또한 強調點을 어디에 둘 것이냐에 따른 韓國이 받는 影響의 程度는 基本方向 또는 原則論의 大變動 以上으로 그 効果가 크고 깊은 것이다. 예를 들면 現在 韓國은 南北間의 軍事力均衡을 유지하는 것이 急先務이기도 한데 美國이 보는 南北韓의 現存軍事力 評價와 같은 重要問題에 있어 우리와 반드시 一致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現象은 때로 韓國軍의 現代化에 있어 重要蹉跌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

北傀軍은 正規兵力數에 있어 韓國보다 分明히 열세인 것 같으나 規模와 武器의 質的인 면에서 볼 때 優劣한 것이다. 이는 그들이 최신의 航空機와 各種 裝備, 전차, 야포, 미사일장치, 오사 및 코마級의 快速哨戒艇, 潛水艦 등을 多量으로 保有하고 있고 또 攻擊의 主導權을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韓國의 既存防衛力을 評價함에 있어서는 雙方間의 軍事戰略的 比較分析이 크게 考慮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특히 北傀軍이 가진 軍事理論과 戰略·戰術을 研究·檢討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諸般問題는 자연히 韓·美兩國간의 異見과 해석상의 差

異를 들어 낼 素地가 있게 된다. 그위에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情勢에 대한 分析, 評價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政策의 實施와 執行에 있어 方法은 多樣해질 수 있는 까닭에 前述한 異見 發生의 可能性은 더해 가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 兩國간에 混線은 빛을 可能性은 軍事問題의 取扱에 있어 政治的, 經濟的 問題에로의 擴大를 試圖코자 하는 美國의 立場 속에도 있다. 다시 말해 韓國의 安保 및 軍事問題를 政治的, 經濟的으로 活用하려는 美國의 意圖가 보이는 데서 問題는 惹起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美國은 現在 韓國防衛가 지닌 問題 즉 軍의 現代化와 自主國防의 達成에 있어 크게 容與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73年度의 경우 韓國의 軍事費의 50%를 美國이 부담하였으니 그 以前에야 말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美國은 韓國安保를 위해 前記 現代化 5個年計劃 支援의 残余分(4億4千余万弗)을 77年까지 支援完了할 것을 公約하고 韓國의 防衛産業育成努力과 韓國이 獨自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韓國軍戰力增強 5個年計劃을 支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前記한 兩國간의 異見發生 可能性問題와 함께 크고 작은 懸案問題가 남아 있으며 그 중에도 比較的 韓國安保에 중요한 문제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美軍의 撤収는 언제, 어떤 方法과 節次에 의하여 實施되는 것인가의 與否와 이에 따른 事前補完문제는 여하히 處理될 것인가.

② 撤収가 實施되었을 경우, 北傀의 奇襲南侵時 美國의 即刻 再介入이 어느정도 保障 또는 可能한 것인가, ③ 그와 같은 狀況下에서 美國의 韓國軍事支援이 어느 정도의 性格과 規模를 가질 것인가 ④ 最新武器와 裝備體系에 있어 韓國軍이 北傀軍에 대하여 均衡을 維持하는데 必要한 水準은 무엇이며 美國은 이를 위해 적극 支援할 것인가 ⑤ 韓國의 首都圈防衛를 위한 美國의 決意가 어느정도가 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提起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2) 韓・日軍事協力關係

韓國과 日本과의 關係는 古代史로 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日本이 大陸進出을 위해 韓半島를 그들의 디딤돌로 생각하고 本格的인 侵略을 꾀한 것은 淸・日戰爭부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아는 바와 같이 韓半島는 東北아시아의 戰略的 鬚衝地의 3極의 심장부를 차지하고 있어 歷史的으로도 아시아의 大陸勢力과 海洋勢力의 競爭의 焦點이 되어 왔다. 中國人은 韓半島를 “中國의 首腦部를 強打할 쇄망치”로 생각했고, 日本人도 韓半島를 가르켜 “日本의 심장부에 겨냥된 短刀”로 인식하고, 雙方은 모두 韓半島를 스스로 掌握하거나 또는 최소한 韓半島가 상대방에게 掌握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努力했다.

日本의 軍事專門家인 前陸幕長 杉田一次 씨는 韓半島를 다음과 같이 分析했다. 즉,

“地勢上 日本은 蘇聯에 의하여 北西의 兩方面을 포위당하고 있으며, 日本의 安全保障에 있어서 重大한 문제의 하나는 韓國에 있

다. 만일 韓國이 共產圈의 陣營에 포함되면, 日本의 防衛가 뿌리로부터 動搖된다는 것은 韓國戰爭의 實例로서도 分明하다.

① 日本本土의 西半部는 敵航空의 制壓下에 들어가서, 우리 航空의 活動은 半波되어 日本의 立場은 極히 困難해진다.

② 日本의 海上防衛力은 對馬海峽도 封鎖할 수 없게되어 海軍根拠地는, 吳, 佐世保를 포기하고 伊豆半島, 小笠原群島, 사이판에서 求해야만 될 것이다.

③ 韓國의 赤化는 日本國民에 至大한 影響을 미칠뿐만 아니라, 日本國內에 居住하는 70萬 韓國人에게 커다란 動搖를 주게 될 것이다.

가령 이러한 事態가 야기된다고 하면 日本이 아무리 우세한 海空軍力을 가지고 있어도 그 戰力은 半波되어 地上軍의 增強이 요청된다는 것은 必至이다. …………… 歷史는 反復된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日本으로 하여금 1894年의 淸·日戰爭, 1904年의 露·日戰爭을 시작케 한 것은 韓半島가 日本의 安全保障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叙述하고 있다.

“日本은 南韓의 防衛에 있어서 不可缺의 基地이며 逆으로 南韓은 東海의 入口를 制壓하고 있기때문에 日本의 安全保障에 있어서 極히 重要하다. 歷史적으로 보아도 南韓을 敵對하는 勢力에 넘기지 않는 것이 日本의 對外政策의 第1의 目的으로 되어왔다. 明治以來, 日本이 싸워야할 正當한 理由를 가지고 싸운 두 戰爭,

清·日, 露·日의 兩戰爭은 南韓이 敵對勢力의 支配下에 들어가는 것을 阻止하기 위해 싸운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

1969年 11月 사토·닉슨共同聲明에서는 이것이 公式的으로 確認되었다. "總理大臣과 大統領은 특히 韓半島에 여전히 緊張狀態가 存在하는데 注目했다. 總理大臣은 韓半島의 平和維持를 위한 유엔의 努力을 높이 評價하고, 韓國의 安全은 日本자신의 安全에 있어서 緊要하다고 말했다." 繼而하여 「내셔널·프레스 클럽」의 연설에서 사토首相은 "특히 韓國에 대한 武力攻擄이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은 我國의 安全에 중대한 影響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韓國에 대한 武力攻擄이 發生하여 이에 対処하기 위해 美軍이 日本國內의 施設·區域을 戰鬪作戰行動의 發進基地로서 사용해야만 하는 事態가 생기는 경우, 日本政府로서는 이러한 認識에서 事前協議에 대하여 積極적으로 또 迅速히 態度를 決定할 方針이다" 라고 했다.

그러나 社會黨과 共產黨 및 일부 知性人들은 이 論理를 부인한다. 그들은 北韓이 南韓을 支配한다해도 北韓은 日本을 侵略할 意思와 能力이 없기 때문에 日本에 威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派도 있다. 이들은 日本議會에서 論爭이 되었던 防衛庁이 작성한 對韓半島戰略인 소위 "三矢研究"를 韓半島에 대한 軍事介入의 準備로 보았다. 그것의 研究目的은 다음과 같다.

"1963年度에 韓半島에 武力戰爭이 發生하여, 이것이 我國에 波及하는 경우를 設定하여, 이것을 例題로 하여 非常事態에 임하는

我国防衛를 위한 自衛隊의 運用 및 이에 연관된 諸般措置 및 手
續을 統合하는 立場에서 研究하고 次年度 以後의 統合 및 各 自
衛隊의 年度防衛 및 警備의 計劃作成에 資料로 하는 동시에 美軍
및 國家施策에 대한 要請을 밝히서 防衛를 위한 諸措置의 具体化
를 推進하는 資料로 한다"로 되어 있다. 日本의 韓半島軍事介入
의 問題는 그들의 國家利益과 國內政治에서 비롯된 것이며 "三矢
研究" 그 자체는 防衛庁의 基本任務에 속하는 것으로 把握하는 것
이 妥當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韓半島에 대한 出兵은 고사하고 美·日間の 對韓軍
事協調를 위한 日本의 어떠한 軍事的 準備도 反對에 부닥칠 것으
로 보는 見解도 있다. 따라서 自民黨政府는 韓國 經濟의 安定
바로 그것이 韓國의 安全에 대한 日本의 寄与라는 論理를 展開했
다. 自民黨政府는 특히 韓國經濟를 安定시킴으로써 韓國의 政治를
安定시키고, 이로써 韓國을 共產圈과 日本의 強力한 緩衝地帶로 세
울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1971年 8月の 韓·日閣僚會談을 契
機로 經濟的 支援을 통한 日本의 對南傾斜는 決定的으로 깊어졌다.

그러나 美·中共회담트와 7.4共同聲明등의 政세變化는 日本으로
하여금 한반도의 問題에 좀 더 積極的인 姿勢를 取할 것과 특히
北韓과의 關係改善이라는 方向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사또首相은
72年 1月 「韓國條項」의 失効를 선언하는 한편, 「산클레멘테」에
서 열린 닉슨과의 共同聲明(72年 1月)에서 「韓國條項」을 전
연 言及하지 않았다. 74年 여름 木村俊夫가 外相으로 就任하면서

그는 「韓国条項」이 時宜에 맞지 않는다고 指摘하고, 「南韓의 平和와 安全보다 韓半島全體의 平和와 安定이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고 선언하면서 「만일 유엔에서의 大勢가 北韓承認의 方向으로 장차 흐른다면, 日本도 北韓承認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리하여 75年 8月 三木・포오드共同聲明에서 새로운 韓国条項이 등장했다. 즉 「韓國의 安全은 韓半島의 平和維持에 緊要하며 韓半島平和維持는 日本을 포함한 東아시아의 平和와 安全에 必要하다」고 했다. 이것은 日本의 對韓半島의 戰略的 價値의 變化로 볼 수도 있다.

韓國의 安保와 日本의 安保와의 關係에 대하여 韓國이라는 文句가 韓半島라는 地域的인 概念으로 代替된 것이다. 이것은 60年代와 같이 自民黨이 安定된 狀態를 유지하고 있다면 自民黨의 一喝로 韓國이라는 文句를 그대로 使用하는 것이 可能하였지만 自民黨이 弱화된 70年代에 있어서는 韓國의 安全이라는 것 보다는도 韓半島全體의 安全이라는 말을 使用하지 않으면 國內政治에 対応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75년에 日本外務省의 遠藤東北아시아課長은 「東北亞에 있어서의 日本의 安保와 韓國의 安保關係가 그 本質에 있어서 變化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日本國內의 政治動向을 이와 關聯시켜서 볼 때 變化되고 있다. 즉, 釜山에 赤旗가 꽂아지게 될 경우 큰 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부터 赤旗가 꽂아지게 되는 過程을 고려하고 이를 前提로 하여 韓半島가 赤化되더라도 日本의 安保에는 關係가 없다고 하는 것이 一部の 思潮이다」라고 示唆한 바 있다.

北韓의 威脅에 대한 認識을 비롯하여 自民黨의 對韓半島政策이 매우 流動的으로 變하고 있기 때문에 韓國은 決코 依持할 생각을 말고 柔軟한 彈力性을 가지고 狀況變化에 따라 対応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韓·日關係에 있어서의 問題點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戰略的 評價의 質的 變化의 問題이다. 즉 그들이 南·北韓에 대하여 等距離外交를 취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韓國이 日本의 安全保障에 緊要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② 日本商社의 北韓에 대한 戰略物資販賣에 대한 問題이다. 前述한 內容에서 日本政府가 後者를 扶한다면 北韓에 대한 戰略物資의 禁輸措置를 취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販賣高에만 關心을 가지게 될 것이다.

③ 有事時, 日本이 韓國에 대하여 軍事的 및 非軍事的 援助를 어느 程度의 規模로 할 수 있을 것인가가 問題이다.

④ 만일 韓半島에 戰爭이 勃發하여 日本이 軍事援助나 介入을 하고자 할 때, 韓國國民의 意識의 向方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3) 美·日軍事協力關係

日本은 1960年 美·日安保條約을 다시 수정했으며 1969年 11月의 美·日頂上會談에 의한 오키나와返還과 1970年 6月20日로서 期限滿了가 되는 美·日安保條約을 自動 延長시킴에 따라서

日本の地位는 새로운 評價를 받게 되었다. 1951年의 美·日安保條約體制가 美國의 完全한 一方的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오키나와返還이후의 美·日安保體制는 日本의 相對的 役割의 向上이라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日本이 이제 GNP에 있어서 美·蘇다음의 經濟大國으로 成長한 것을 勘案한다면 國防費 支出이 GNP의 1%未滿이라는 點은 특히 考慮되어야 할 要素이다.

日本은 76年 6月 4日 「日本防衛白書」를 發表했다. 同 白書에 의한 國防에 관한 日本의 基本的 立場은 繼續 一次安全保障을 美國에 依存하면서 主要武器의 質的 向上을 추진할 것이며, 日本은 美·日安保條約에 의거 美國의 核雨傘과 在來式軍事力에 아직도 依存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美·日安保體制의 堅持를 강조했다. 그리고 7月 8日에 열린 第18次 美·日安保協議委員會에서 「美·日防衛協力小委員會」를 創設했으며, 그것은 「美·日安保條約의 目的을 効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해 軍事面을 포함한 美·日 協力の 具體的 方案을 研究·協議하는 것」을 目的으로 내 세우고 있다.

이것은 安保條約 第5條에 따른 聯合作戰의 方針을 마련하는 것이 主任務이다. 지난번에 討議된 內容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全然 밝혀진 바가 없지만, 大體로 日本으로서는 增強一路에 있는 極東蘇聯軍의 威脅에 대해 美國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美國으로부터 防衛協力の 保障을 確實히 얻어 놓으려는데 진력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7月 8日, 美·日安保協議委員會에서도 坂田長官은 韓半島에서

紛争이 일어나면 日本의 安全에 影響을 미친다고 指摘하고 美軍의 韓國駐屯의 必要性을 거듭 強調했다. 이러한 見解는 日本의 防衛 負擔을 減어 보자는 속셈으로 解析되기도 한다. 美國政府官吏들이 機會있을 때마다 日本은 極東에 있어서의 防衛負擔을 늘려야 한다고 역설했기 때문이다. 브라운美合參議長은 76年 1月 27日 下院 軍事委員會에 「1977年度 軍事態勢에 관한 報告」를 提出했는데 日本에 관한 事項은 다음과 같다. 즉,

「日本은 여전히 이 地域에서의 重要한 同盟國이며……………日本에 있어서 美軍基地없이 美國의 態勢를 유지하기 어렵다. 아시아의 平和와 安定은 日本의 安定에 依存하고 있다. ……………美國의 政策은 日本이 太平洋의 重要한 兵站線의 防衛를 補強하는 對潛作戰 能力을 開發하는 것을 助長하는데 있다. ……………이것이상의 駐日美軍의 削減, 基地의 移轉은 이 地域의 政治的 安定을 잃게 할 우려가 있다. ……………美國의 對日軍事政策은 日本의 大規模의 再軍備를 防止하고 日本이 核武裝을 요구하는 必要性을 排除하는 것도 目的으로 하고 있다.」고 한 것인데 이 報告書는 日本의 對潛能力의 改善을 要求하고, 駐日美軍基地의 整理統合을 멈추어야 한다는 것은 力說했다.

以上の 狀況을 勘案할 때, 美·日간의 問題點을 要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만일 韓半島의 戰爭再發時, 駐日美軍의 日本基地使用의 問題, 規模와 樣相, 日本의 軍事的, 非軍事的 援助規模 및

様相의 問題

- ② 駐日美軍 및 自衛隊의 有事時의 指揮權問題와 相互補完問題
- ③ 駐日美軍 基地의 縮小化問題
- ④ 美軍의 常時駐屯의 廢止와 有事時의 美軍의 機動性, 그리고 基地의 再使用을 基礎로 하는 協力戰略에 대한 問題
- ⑤ 東北亞에 있어서의 日本의 軍事的 負擔問題등이 될 것이다.

나. 美·中·蘇關係에 있어서의 힘의 均衡

- 中·蘇對立을 中心으로 -

美國은 越南戰終戰後의 國際關係를 단지 美·蘇關係라고 하는 觀点에서 뿐만 아니라 「美·蘇·中關係」라고 하는 觀点에서 再把握코자 하는 것 같이 생각된다. 닉슨·키신저外交의 功績은 尙極的 封鎖政策을 3角的 勢力均衡外交로 바꾼데 있다. 今後 美國의 外交는 이 觀点에서 推進케 될 것이다.

勿論, 從來에도 美·蘇·中關係라고 하는 것은 1960年代로 부터 云謂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關係는 極東의 地域的 構造로서 가 아니다. 世界的인 永統的 基本構造로서 把握되기 始作하고 있는 것이다. 美議會下院將來外交政策小委員會는, 윌프議長의 아시아訪問後, 美·蘇·中關係의 本格的 研究에 着手했다. 이를 위한 公聽會는 75年 10月 21日부터 始作되었다. 그 最初의 報告 「美·蘇·中共 : 巨大한 힘의 3角關係」(United States-Soviet Union-China : The Great Power Triangle)의 第1部가

76年 5월에 發表되었다.

戰後의 美國의 外交政策基調는 始終一貫, 美·蘇關係를 機軸으로 해 왔다. 美國은 戰後, 國際社會에 있어서 美國의 優位를 確立했다. 第2次大戰末 形成된 것 처럼 보여졌던 美·蘇協調는 곧 깨어지고, 美國은 蘇聯共產主義의 挑戰을 받아, 이에 封鎖政策으로 応答했다. 中共은 当初, 蘇聯의 衛星國의 하나로 간주되었는데, 이제 中共은 蘇聯과 敵對하는 다른 힘의 센터가 되었다. 中·蘇對立은 다시 50年代의 모놀리트로 돌아 갈 可能性은 없다. 브루킹스研究所의 파아네트所員은, 前述한 公聽會의 첫날에 오늘날의 中·蘇對立의 狀況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分析하고 있다.

(1) 「中·蘇對立은 어느 만큼 重要한가」

中·蘇對立은 中·蘇同盟과 같은 정도로, 國際的力關係에 極히 深刻한 變化를 생기게 할 地震效果를 갖고 있다. 中·蘇對立은 20年에 걸친 美·中共軍事對決을 종식시키고, 美·日과의 關係再開의 基礎를 부여했다. 그것은 東北아시아의 力關係가 兩極에서 多極으로 變化한 基本的 原因이었다.

(2) 「中·蘇對立은 어느 정도 深刻한가」

中·蘇간의 紛爭은 極히 深刻하다. 그 原因은 1950年代末부터 60年代에 걸쳐 발전한 國家利益의 衝突, 특히 軍事安全保障 문제를 둘러싼 싸움이였다. 세차례의 決定的인 事件이 있었다. 1958~59年の 金門·馬祖島砲擊事件, 1962~63年の 部分核禁條約의

調印, 1960年代末의 蘇聯의 對中共周辺大規模軍事配置, 國境紛爭은 對立의 主要原因은 아니다.

(3) 「中·蘇戰爭의 危險은 있는가」

1960年代末에는 있었으나 以後 감소했다. 그러나 그 危險이 完全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意圖的이 아니더라도 偶然히 紛爭으로 擴戰할 衝突의 危險이 있다.

(4) 「中·蘇和解는 可能한가」

가까운 將來, 1950年代와 같은 和解의 可能性은 없다. 이러한 和解는, 만일 中共이 美國은 蘇聯보다도 더 重大한 威脅이라고 판단하면, 美國에 대해서는 危險한 노릇이다. 美國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된다.

(5) 「限定的인 中·蘇間 對峙는 있을 수 있을까」

毛死後, 限定的인 中·蘇間 對峙는 漸進的으로 있을 수 있다. 우선, 이데올로기論爭의 沈靜化로 시작되어, 貿易의 擴大, 政府間關係의 改善, 黨關係의 改善이 될 것이다. 이어 國境紛爭의 解決에 이르면 그 前提는 蘇聯이 中共에 대해서 脅迫的인 軍事態勢를 취하지 않는 것이 必要하다. 이들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中共은 蘇聯을 繼續 潛在的 威脅으로 간주할 것이다.

(6) 「限定的 中·蘇間 對峙는 美國의 利益에 違反하는가」

限定的·漸進的인 中·蘇間 對峙는 美國의 利益에 있어서 오히

려 바람직하다. 오늘 날 中·蘇紛爭은 美國에게 어떤 種類의 지렛대를 賦與하고는 있으나, 또한 極東과 世界的으로도 많은 狀況에서 不安定要因으로 되어 있다. 예컨대 韓國問題에서, 中·蘇紛爭은 4 國의 相互理解의 主된 障害로 되어 있다. 北韓은 보다 強力한 支持를 얻기 위해, 中·蘇競爭을 利用할 수가 있다. 또 하나의 예는 軍備콘트롤이다. 中共의 核兵器能力이 增大함에 따라, 中共을 軍備콘트롤에 加入시키는 것이 重要하게 되는데, 中共은 美·蘇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措置에 加入하는 것을 繼續 拒否하고 있다. 美·中共, 美·蘇間關係를 해치지 않는다면, 漸進的·限定的인 中·蘇間 회담트는 인정되어야 한다.

(7) "어떠한 目的이 美·中·蘇關係에 관해서 美國의 政策을 動機賦與해야 하는가"

우선 美國은 漸進的으로 밸런스를 취하면서 中·蘇와의 關係改善을 추진해야 한다. 美國이 지렛대의 힘을 利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他方에 대해서 一方을 操作하거나, 連合하는 것은 賢明치 않다. 그러나 오늘 날, 中共은 弱한 立場에 있기 때문에, 中共에 대한 蘇聯의 軍事壓力을 最小化할 수 있도록 政治的 影響力을 行使해야 한다. 同時에 中共의 蘇聯에 대한 好戰的 行爲를 認定해서는 안 된다. 現在, 美·中共關係는 最小이기 때문에 中共과의 "正常化" 關係의 措置를 취해야 한다. 이 경우, 台灣과의 關係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難問題에 直面한다. 美·中共關係의 改

함에 있어서는, 日本과의 協議가 不可缺하다. 또한 美·蘇데탕트를 해치지 않도록 注意하지 않으면 안된다. 美國의 長期的 目標은 東北아시아에 보다 安定된 美·蘇·中 4個國의 힘의 均衡을 만들어 내는데 있다.

이와같은 中·蘇關係 或은 美·蘇·中共關係의 認識을 前提로 하여 美國은 今後, 여하한 對蘇, 對中共政策을 推進코자 하는 것일까. 76年 3月 23日 下院의 將來外交政策小委員會에서 윈스턴·로오드 國務省政策企劃局長이 「美國·蘇聯·中共」에 대해서 証言한 內容을 根拠로 考察해 보자.

美國의 對外政策의 第1優先順位가 對蘇政策에 있는 것은 今後에도 變함이 없다. 對蘇政策의 基本은 「2重政策」(dual Policy)에 있다. 或은 「dual approach」, 「two-track approach」라고도 불리운다. 實은 이것은 키신저國務長官이, 76年 2月 3日, 샌·프란시스코에서의 「平和의 永続的 挑戰: 美國의 對蘇政策」이라는 演說에서 分明히 한 概念이다. 즉 戰後 30年이 지난 오늘날, 蘇聯은 美國과의 힘의 均衡에 到達했다. 美國은 蘇聯의 이 힘의 成長을 阻止할 수 가 없었다. 核時代에는 戰爭은 어떻게든 지 회피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蘇聯의 軍事力이 政治的·膨脹과 局地的, 優位를 위해서 使用되는 것을 阻止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것과 同時에, 蘇聯과의 보다 建設的 關係를 形成하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軍事的으로는 힘의 均衡을 保持하여 核戰爭을 未然에 防止하고 局地侵略을 阻止한다. 外交的으로는 1972年의

美·蘇基本關係協定の 데탕트의 線을 더욱 協力の 關係로까지 높이는 것이다.

그런데, 昨今, 美國의 펜타곤關係者間에는, 軍事的으로는, 美·蘇간의 지금의 傾向이 繼續되면, 80年代에는, 美國은, 戰略的 均衡커녕 戰略的 劣勢로 까지 빠져 버릴 것이라는 우려와 焦燥의 빛이 짙은 데에는 약간 意外이다. 76年の 럽즈펠드報告의 한 力點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은 例年에 있었던 予算獲得을 위한 단 순한 캠페인만은 아닌 것 같다. 美·蘇의 軍事力을 量的으로 比較하면, 爆擊機와 헬리콥터를 除外하곤, 다른 것은 모두 蘇聯쪽이 數量的 優勢를 保持하고 있다. 美國은 質的 優位에 의하여 量的 劣勢를 카버하여 均衡을 維持하고 있다고 하는데, 펜타곤의 研究技術 局長 맬컴·카리의 지적에 의하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誤解이며 美·蘇技術벨런스에 있어서의 美國의 優位는 상실되고 있는 중이며, 약간의 重要的 面에서는 이미 蘇聯이 리드하고 있어, 「現在의 傾向에서 推測하여 보건데, 美國이 適切한 反應을 缺如하면, 다음에, 蘇聯의 質的 改善과 量的 優越이 結合하여, 蘇聯은 1980年代에는 軍事的 優越을 達成하게 될 것이다」라고 警告하고 있다.

아무리 데탕트라고 하더라도, 軍事的으로는 當分間, 美國은 越南戰爭의 空白을 메꾸고, 戰略的 均衡을 回復하기 위한 眞摯한 努力을 繼續하게 될 것이다. 「總合戰力」의 概念下에, 同盟諸國의 “地域防衛力”의 強化, 특히 앙골라의 敗北를 契機로 蘇聯海軍力의 進展에 대한 萬·백策을 취하게 될 것이다. 日本에 關聯한 事項으

로서는, 76年 2月 2日, 下院軍事委員會에 있어서의 힐 리스議員과 할로웨이海軍作戰部長과의 質疑応答이 注目된다.

質問: 日本은 특히 ASW분야에서 보다 積極的인 役割을 担当하도록 장려하는 政策을 우리들이 考慮해야 하는지의 与否에 대해서, 당신의 意見을 듣고 싶다.

우리들은, 그들을 保護하기 위해서 이 分野에서의 任務를 現實로 履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補完할 때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하는가.

答弁: 예스, 우리들은 日本人에게 自己防衛의 보다 큰 分担을 부담토록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對潛作戰(ASW)은, 특히 日本의 海上自衛隊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関心이 있다. 왜냐하면, 日本人이 自己의 經濟活動에 完全히 依存하고 있는 海上交通線을 保護할 用意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對中共政策에 대해서 말한다면 目下 最大의 課題는, 中共과의 國交正常化를 如何히 推進하느냐 하는데 있다. 目標은 이미 設定되어 있으며, 이제方法論이 問題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도 下院國際關係委員會는 특히 調査特別小委員會를 設置하여, 75년부터 繼續 公聽會를 開催하여 研究를 繼續해 왔는데, 76年 8月 27日, 「美·中共關係: 關係正常化의 過程」이라는 報告가 마무리되었다. 해밀턴議長이 정리한 結論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今後 數年內에 中共과의 關係正常化를 向해서 努力하는 것이 美國의 國家利益이다.
- (2) 中共과의 關係正常化의 過程은, 台灣과의 關係格下를 수반한다. 이 格下가 무엇을 포함하는지는 分明치 않으나, 하나의 方法으로서 日本方式이 있다.
- (3) 關係正常化를 妨害하고 있는 中心問題로서의 台灣의 重要性은 過小評價되어서는 안 된다. 台灣問題가 處理되지 않으면, 美·中共關係는 急激히 惡化한다.
- (4) 毛死後의 中共의 리더십은 分明치 않으나, 아마도 一聯의 變化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 이 進展은 低水準의 對中共關係에는 影響은 없다.
- (5) 美國과 中共은 世界의 各地에서 補完的 利益을 가질 수 있는데, 이 兩立性이 過大評價되어서는 안 된다. 美·中共의 結付는 徐徐히 進展하고, 急激한 改善은 일어날 수 없다.
- (6) 美·中共간의 文化·科學交流와 貿易은 繼續 되는데, 政治關係에서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는 影響을 받지 않는다. 이 점을 넘는 發展은, 美·中共關係가 停滯的인 限, 阻害될 것이다.
- (7) 次期大統領은 美·中共關係의 問題에 높은 優先度를 賦與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 最近의 中·蘇·北韓協力 關係現況

便宜上 1975年 4月 18日부터 1976年 8月 10日까지의 關

係現況을 살피 보면서 北韓의 이른바 自主路線의 表現인 對中·蘇
等距離外交政策을 立証해 보고자 한다. 이 경우 訪問, 招請은 高
位黨 및 政府代表團 水準에 局限했다.

우선, 北韓의 訪問外交의 경우, 中共, 蘇聯에 各各 1次이지만 中
共訪問에 있어서는 直接 金日成이 團長이 된 平壤 首腦진의 行脚
이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 1975年 4月 18日에서 27日까
지의 整整 10日間에 結成 金日成行脚과는 대조적으로 1976年
1月 27日의 蘇聯訪問은 일반적으로 政府代表團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것이 立証하는 바는 對中·蘇等距離外交姿勢라는 基本테두
리內에서 密着度는 역시 北京쪽이 「진」하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다음 北韓의 招請外交의 경우, 中共이 5回, 蘇聯이 2回이다.
中共의 경우, 當時 中共黨政治局常務委員 兼 黨總書記 兼 中共軍
總政治部主任 兼 國務院副總理인 張春橋가 直接 團長이 되어 1975
年 9月 21日부터 27日까지 一週間, 中共黨代表團을 引率하여 平
壤을 訪問했다. 이에 대해 蘇聯共産黨 活動家代表團이 1976年
6月 17日 平壤을 訪問한 바 있다. 따라서 招請外交의 경우도
訪問外交의 패턴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協定調印에 있어서는 3 : 8로 蘇聯이 約 3倍 弱하다.
이 경우 留意해야 할 協定은 1975年 10月 27日에 蘇聯과 調
印한 蘇聯船舶에 대한 奉仕業務協定이다. 이것은 北韓 港口에서의
蘇聯船舶의 給油, 給水, 修理作業을 規定한 最初로 맺어진 協定調印
이라는 意味에서 그 뜻하는 바가 深刻하다.

3. 北方3角關係에 대한 美國의 衝擊(假定)

北方3角關係 그자체(an sich)만의 問題를 떠나서 앞으로 提起될 수도 있는 南方3角關係의 北方3角關係에 대한 衝擊을 對自的(für sich)으로 연관시켜서 檢討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상 中·蘇關係는 中·蘇 두나라만의 關係가 아니라 第3國인 美國이 깊숙히 介入된 3者關係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그 美國의 主役이 바뀐 狀況에서 假定에 不過하더라도 이 3者關係가 分析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想定할 수 있는 問題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北方3角關係에 있어서는 그 主要한 軸인 北京의 指導層이 바뀌었으나 모스크바와 平壤은 變動이 없다.

나. 따라서 美國의 影響은 자연히 北京에 대해서인데, 이 경우

- (1) 카터行政府가 追求할 수 있는 스타일은 이른바 「美·日·中共」聯合의 對蘇牽制姿勢일 것이다. 美國의 새로운 行政府에서 主要한 安保外交政策을 요리할 브제진스키教授의 論理에 따르면 이 姿勢는 可能性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最大關心은 이러한 美國의 움직임을 華國鋒體制가 如何히 受諾하느냐 하는데 있다. 華國鋒體制의 性格으로 보아 戰術的 需要의 對象國으로 美國이 클로즈·업되기 때문에 西方的인 게임理論에 立脚한 이러한 美國의 追求는 中共의 「戰略的 態勢」만을 強化시

켜 주는 「마이너스効果」밖에는 創出할 못할 것이다.

이 경우 平壤에게 如何한 「주름살」을 招來할 것인가?

北韓은 美國의 새로운 軸概念인 「美·日·中共」協調體制에 의한 對蘇牽制姿勢에서 언필칭 그들의 對美接近의 窓口를 더욱 넓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冷嚴한 事實이다.

따라서 「美·日·中共」의 새로운 軸概念은 北方3角關係에 대해서 戰術的마누버링의 뒤안길에서 戰略的 實利를 獲得할 수 없는 마이너스要因을 創出할 뿐만 아니라 北韓에 대해서는 對南戰略의 一環인 對美單獨平和條約協商의 窓口를 넓혀주는 始初點을 제기할 수 있다는 事實을 直視해야 할 것이다.

(2) 美國의 新政府가 北方3角關係의 變數인 中共에 대해 試圖코자 하는 方式에는 對蘇牽制는 日, 中共 兩當事國에 맡기고, 美國은 後見人으로 처져 버릴 수 있는 點도 考慮될 수 있을 것이다. 카터가 가장 力點을 두고 있는 日本의 役割重視로 볼 때 이 方式도 想定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선, 日·中共平和條約締結이 推進될 것이며 이것은 逆으로 日·蘇關係를 緊張케 할 것이다. 이 緊張을 美國이 무마하고자 할 경우 美國은 對中共카드를 自由裁量으로 處理할 수 있는 振幅을 좁히는 結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補完策으로 술레신저前國防長官의 「前進戰略基地」概念이 追加될 수 도 있다.

이 問題는 日·中共 兩當事國으로 하여금 對蘇牽制를 試圖하고자

할 경우, 새로 등장한 福田政權이 美國의 意圖를 受諾할 수
있느냐의 與否일 것이다. 美國의 이러한 方式이 北韓에게는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

(가) 北韓의 對日接觸을 促進시킬 것이다.

(나) 蘇聯의 不安을 利用하여 보다 有利하게 蘇聯의 援助를 獲
得케 될 것이다.

上述한 分析을 통해 아래와 같은 問題點이 導出된다. 즉,
美國의 새로운 軸概念인 「美·日·中共」協調體制에 의한 對蘇牽制
姿勢이건 日本의 役割을 重視하여 中共과의 연계를 日·中共 兩當
事國에게 맡기고서 對蘇牽制를 試圖하고자 하는 姿勢이건 그 모든
경우에 있어서 北方三角關係에 投影될 때 「마이너스」要因이 보인
다는 事實이다.

4. 駐韓美軍撤収와 4強의 軍事均衡關係의 展望

가. 駐韓美軍撤収論의 論調

駐韓美軍의 撤収問題는 요즘 갑자기 出現한 것이 아니고 從來부터 가끔 問題가 되어 왔던 것이며, 닉슨·독트린과 같은 美國의 70年代의 戰略에서 當然히 派生해 오는 問題인 것이다. 더우기 비둘기派가 主流를 차지하고 있는 美國의 民主黨黨員中에는 이 撤収論者가 많고 民主黨選出의 카터大統領이 이것을 公約으로 표방한 것도 特異한 것은 아니다.

(1) 카터 大統領의 撤収論

駐韓美軍撤収問題에 관한 카터大統領의 發言을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駐韓美軍을 4~5年の 期間으로 撤収시키고 싶다. 그러나 이 點에 관해서는 決定的인 것은 아니다. 나는 韓國에 있어서 核兵器의 使用을 必要로 하는 情勢를 想像할 수 없으며 韓國에 核兵器를 놓아 둘 理由를 모르겠다」¹⁰⁾

(나) 「韓國으로 부터의 地上部隊의 撤収는 韓國 및 日本과 協議後 決定되는 日程에 따라서 段階적으로 可能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¹¹⁾

(다) 다음으로 카터 大統領의 意向이 充分히 反映되어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는 民主黨綱領(76年 7月)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韓國의 安全保障에 관한 美國의 約束을 再確認한다. 이것은 美國뿐만 아니라 日本의 安全保障에 대해서도 決定的인 重要性을 갖고 있다.

그러나 慎重한 計劃에 立脚하여 駐韓美地上軍을 段階적으로 削減하고 또한 美軍의 戰術空軍과 海軍部隊가 強力한 限, 韓國에 대한 支援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韓國內의 核兵器를 撤収하는 것이 可能하다.」

(라) 76年 12月 21日 카터 大統領은 大統領當選後 처음으로 이 撤収問題에 言及하여 「地上軍의 撤収는 韓國 및 日本과 協議한 後, 極히 寸寸히 整然하게 慎重히 履行할 것」이라고 表明하고 있다.

이러한 發言에서 알 수 있듯이 카터 大統領의 撤収論의 主要旨는 다음과 같다.

- ① 撤収는 戰術核과 陸軍을 對象으로 하고 空軍은 當分間 남겨둔다.
- ② 戰術核의 撤収를 強力히 主張한다.
- ③ 地上軍의 撤収는 日本 및 韓國과 協議한 後 慎重히 履行한다.

最近, 카터 大統領의 브레인의 한 사람인 윌키는 「駐韓美地上軍을 5年以內에 段階적으로 撤収해야 한다」고 陳述함과 아울러 「撤収에 대해서는 日本 및 韓國에는 拒否할 權利는 없다」고 注目할만

한 發言을 하고 있는데, 日本, 韓國과 協議한다고 하는 것도 撤收의 單純한 技術的 事項의 調整이 될 可能性도 있을 것이다.

(2) 一般의 論調

카터 大統領의 當選後, 駐韓美軍撤收問題에 대해서 美國의 要人들이 잇달아 發言하고 있는데, 그 以前을 포함한 昨年부터의 主要한 發言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맨스필드 上院民主黨 院內總務

「駐韓美軍의 存在와 韓美條約의 誓約이 美國을 새로운 아시아의 戰爭으로 말려들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徐徐히 駐韓美軍을 削波하여 撤收시킨다.」(75年 5月)

(나) 上 同

「美國은 가까운 將來, 韓國에서 陸軍, 海軍뿐만 아니라 空軍을 포함한 모든 美軍을 撤收해야 한다. 撤收에 있어서 不可缺한 韓國에 대한 防空保障은 駐日美軍基地 및 近海配備의 航母로부터의 發進에 의하여 비로소 可能케 된다.」(76年 12月)

(다) 카밍그스 教授

「戰術核을 早期에 撤收하고, 38度線의 美軍을 1~2年以內에 撤收시켜, 더 나아가 80~82年까지는 段階적으로 完全히 撤收시킨다.」(76年 3月)

(라) 라이샤워 教授

「韓國의 軍事力은 이제 北僞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中.

蘇는 戰爭再發을 바라지 않으며 北傀 单独으로는 軍事的 冒險을 하지 않을 것이며, 日本의 防衛에 대한 美軍의 約束에는 全히 變化가 없다.

또한 美軍과 그 核兵器의 撤收를 事前에 發表하여 撤收를 徐徐히 履行하여 속크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76年 7月)

(마) 함프리 民主党上院議員

「만일 美國政府가 駐韓美軍의 削減을 진지하게 생각하여 計劃하기 始作하지 않는다면, 美議會는 忍耐力을 상실하여 撤收를 立法으로 要求할 것이다.」 (76年 10月)

(바) 함멜 國防次官補

「駐韓美軍의 水準은 不變한 것이 아니다. 이 水準은 北傀의 威脅, 韓國軍의 增強 및 國際情勢에 의하여 決定되어야 한다.」 (76年 12月)

(사) 레어드 前國防長官

「韓國의 地上軍兵力은 北傀에 대하여 2對1의 優位에 서 있으며, 駐韓美地上部隊는 韓國防衛의 見地로 보아도 그렇게 重한 것은 아니다. 駐韓美軍은 空軍에만 限定하고, 地上部隊는 撤收해야 한다.」 (76年 11月)

以上과 같이 여러가지 角度에서 主張하고 있는데, 其他 發言도 포함하여 撤收를 主張하는 理由를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駐韓美軍은 美國을 戰爭에 말려들게 할 우려가 있다.
- ② 韓國은 혼자의 힘으로도 北傀에 対応할 수 있다.

③ 駐屯部隊가 美國의 財政上의 負擔으로 되어있다.

④ 韓國의 防衛는 美國의 國家利益에 대해서 不可缺한 것은 아니다.

카터 大統領의 發言으로 보아 駐韓美軍撤収의 順序는 戰術核, 陸軍 및 空軍의 順이며, 또한 陸軍도 段階的으로 撤収할 可能性이 강한데 이것도 今後 關係當局에서 檢討될 事項일 것이다.

그런데 前述한 撤収論등에 나타나고 있는 撤収의 樣態를 分類해 보면 戰術核을 撤収할 경우, 陸軍을 撤収할 경우 및 空軍을 包含한 駐韓美軍全部를 撤収할 경우등의 세 가지로 分類할 수 있을 것이다.

나. 駐韓美軍撤収의 目的과 그 影響

韓國에 配置되어 있는 美軍의 戰術核의 彈頭는 700個程度라고 하는데 運搬手段으로서는 어네스트·존, 서전트 등이 있다.

이 戰術核은 카터 大統領이 가장 問題로 하고 있는 것인데 美國의 「頭腦集團」(카터 大統領의 브레인도 들어있다)도 76年 11月 「韓國에 있는 戰術核兵器는 利益이 없고 危險만 있기 때문에 모두 撤収해야 한다」는 研究報告를 發表하고 있다.

核을 撤収하는 目的은 韓半島에 있어서 核이 使用되는 事態를 回避하여 카터 大統領의 公約을 最小限 實現함과 아울러 韓國과 日本등의 意向을 받아 들어서 當分間은 主力을 駐屯시켜 「韓半島에

公約을 維持」하기 위해서 일 것이다.

또한 이 외에 將來의 撤収에 對備하여 北傀와의 對話를 위한 環境조작의 의미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 環境造作에는 다음과 같은 先例도 있다.

1971年, 美國은 닉슨·독트린에 따라 休戰線의 防衛를 韓國에 맡긴 후, 韓國의 要請을 뿌리치고 第7師團을 韓國에서 美本土로 撤収시켰다. 그리고 이 時期는 바로 美·中共接近을 위해 키신저가 北京에 있을 무렵이며, 이 撤収가 美·中共國交의 環境조작의 目的을 兼하고 있었다고 간주될 수 있다.

美國은 이 때까지 「韓國에 있는 核은 抑止를 위한 것이지 實際로 使用하고자 생각한 일은 없다」고 言明하고 있으며 또한 國際與論의 影響 擴戰의 危險을 考慮하면 美國이 核을 使用하는 것은 그 國家利益上 死活的인 경우일 것이며 通常火力의 延長으로 使用할 可能性은 極히 적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核이 撤収되어도 韓半島에 있어서의 通常戰力의 밸런스에 直接的인 影響은 적을 것이라고 美國의 官邊側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편 南北의 現在의 밸런스는 이 戰術核에 의하여 겨우 維持하고 있으며 이것이 없어진다면 韓國의 防衛는 어렵게 된다는 見解도 있다.

아무튼 核을 撤去 한다면 戰術核이 갖는 心理的 抑止效果가 低下할 것은 免치 못할 것이다.

美國으로서는 戰術核은 駐韓美軍중에서도 가장 撤収하기가 쉬운

戰力이지만 問題는 이 撤収가 韓國의 核武裝을 自招하지 않을가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韓國이 核을 保有하게 되면 北傀도 核裝備를 바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韓半島에 있어서의 核戰爭의 危險은 現實의 問題가 될 것이다.

現在 美國은 核擴散防止를 위한 새로운 協定の 必要성을 主張하고 있으며 카터大統領도 核軍縮의 問題에는 힘을 傾注할 意向이며 韓國에서 核을 撤去할 경우에는 國際的 協定の 措置를 한層 強力히 추진케 될 것이다. 또한 同時에 必要한 경우에는 第7艦隊에 의하여 核의 支援을 이행할 것을 韓國에 約束하여 그 核武裝化를 防止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2) 陸軍을 撤収할 경우

駐韓美陸軍의 第8軍主力인 歩兵第2師團은 休戰線 近傍에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紛爭이 일어 날 경우 즉각 이에 달려 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려되는 部隊이다.

美國이 이 陸軍을 撤収시키는 最大의 目的도 「紛爭에로의 自動的인 달려음을 回避」하자는데 있을 것이다.

또한 韓半島의 急激한 變化를 回避하기 위하여 空軍을 繼續 駐屯시켜 紛爭의 抑止에 努力함과 아울러 國防予算의 制約에 골머리를 앓는 美國으로서는 駐屯經費를 조금이라도 節約코자 하는 目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英國國際戰略問題研究所發行的 「軍事力均衡 1976~1977年」

에 의해, 南北의 軍事力を 比較해 보자.

陸軍의 正規軍의 人員數는 南 52萬, 北 43萬으로 南쪽이 우세하다. 予備戰力を 追加하면 北이 逆轉되며, 게다가 北의 予備戰력은 裝備도 좋고 訓練度도 높다.

戰車는 南 840台, 北 1,350台로 1對1.6이다. 美軍의 戰車는 M-60型戰車로 質的으로도 우수하며, 數는 약 100台에 불과하나 韓國의 戰車戰力の 向上에 크게 貢獻하고 있다.

또한 對空火力으로서는 地對空 미사일은 南 93基, 北 250基로 美軍의 140基를 追加하면 대충 同等한 戰力이 된다.

또한 防空部隊인 第38防空旅團은 韓國의 北半分の 防空을 한 손에 맡고있는 部隊이다.

野砲도 南 2,000門, 北 3,000門으로 北이 強勢이며 더욱기 北은 多連裝로케트도 裝備하고 있기 때문에 砲兵火力은 北이 優勢하다.

이와 같이 現在로서는 韓國의 戰力이 北의 戰力에 比해 劣勢이기 때문에 韓國은 自國의 防衛力이 일단 整備될 때 까지 美軍의 駐屯을 強力히 希望하고 懇請하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裝備現代化 5個年計劃」(1977年까지), 「戰力增強 5個年計劃」(1980年까지) 등에 의하여 80年頃까지는 北에 匹敵하는 戰力을 整備하게 된다.

이러한 戰力比較에서 陸軍이 撤収할 경우, 戰車와 防空에 있어서는 특히 戰力 밸런스上 問題가 된다. 이 때문에 美國은 戰車와

防空部隊撤収는 맨 나중에 할려고 생각할 수 있다.

美國은 陸軍의 大幅 撤収에 앞서 우선 政治的인 틀을 만들려고 計劃할 것이다. 즉 現在 中斷되어 있는 南北對話를 추진하거나 北傀와의 直接 交涉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며 或은 北傀의 行動을 制止하는 것에 대해서 中共의 約束을 다짐 받으며 더 나아가 美·日·中·蘇의 4個國保障등의 緊張緩和措置에 努力코자 할 것이다.

勿論 이러한 틀이 整備되었다고 하더라도 越南과 같이 곧 그 約束이 휴지조각으로 되어 버릴 경우가 있다는 것도 考慮해 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其他 對策으로서는 美軍이 撤収할 경우에 그 裝備를 韓國軍에 讓渡하는 것이 考慮될 수 있다. 이것은 越南등에서의 撤収에 있어서도 이행된 것이며, 이 讓渡에 의하여 韓國의 裝備는 大幅 向上될 것이다. 또한 軍事·經濟援助도 지금 以上으로 強化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들이 實際로 韓國軍의 戰力이 되기 위해서는 相當한 期間이 必要하게 되는데 撤収前에 漸次 代身引受하는 訓練등도 計劃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公約의 意志를 나타내기 위해서 基地機能을 維持하여 「有事駐屯體制」로 하고, 또한 演習등에 의하여 實際로 介入의 姿勢를 表示하는 것등이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問題는 駐屯美軍과 韓國軍과의 指揮權問題이다.

現在 韓國에 配置되어 있는 유·엔軍은, 司令部要員(美第8軍의 司令部要員이 兼務) 등 數百名이 存在할 뿐인데, 그 司令官(美第8軍司令官이 兼務)은 韓國軍을 作戰指揮下에 두고 있다.

그러나 1975年의 유·엔總會에서 UNC의 解体決議案이 可決된 일도 있으므로, 美陸軍이 撤収할 경우에는 UNC도 解体될 可能性이 多分히 있다.

따라서 韓國에 남은 美空軍과의 指揮關係를 如何히 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긴다. 韓國軍과 美軍에 의한 合同司令部와 같은 組織을 만들어 이 司令部가 兩軍을 指揮하는 方法도 考慮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美側이 韓半島에 公約을 維持코자 하는 意志가 있는 限 美側이 이 司令官을 担当코자 할 것이다.

한편 空軍도 撤収시켜 버릴 경우와 美國이 公約을 回避코자 할 경우는 撤収의 進展에 따라, 時期를 보아 韓國側에 指揮權을 讓渡할 것이, 假定이기는 하나 予想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空軍을 包摂한 駐韓美軍 全部를 撤収할 경우

美國은 現在, 空軍을 앞으로 4~5年間은 남겨 둘 意向이므로 空軍을 포함한 全部를 撤収시킬 可能性은 比較的 적다.

그러나 「韓半島에 대한 公約을 原則적으로 回避」코자 한다면, 또한 駐屯經費를 節約코자 한다면 全部撤収도 可能性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 경우 第314航空師團은 日本의 横田에 司令部를 갖고있는

第5空軍의 指揮下의 部隊이기 때문에 撤收할 경우, 하와이, 괌, 北
東外에 日本에 移駐할 수 도 있을 것이다.

이제 南北의 空軍力을 살펴보면 南은 200機, 北은 600機로,
北이 南의 3倍의 機數를 갖고 있다. 다만 北의 航空機에는
MIG-15, MIG-17의 旧式機도 많다고 하며, 한편 韓國은 F-5,
F-4를 導入하여 增強에 努力하고 있기 때문에 數的인 差만큼
戰力較差가 두드러 지지는 않는다.

駐韓美空軍은 駐日美空軍과 第7艦隊의 航空機와 함께 空軍의 戰
力밸런 스維持에 커다란 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76年 8.18 事件때도, 오끼나와의 펜텀과 美本土의 F-111을
즉각 韓國에 增援함과 아울러 괌의 B-52를 韓半島附近에 出動시
켜 美國의 支援態勢를 나타내고 있다.

韓國은 空軍을 특히 重視하여 戰力增強을 試圖하고 있으므로 今
後 空軍의 戰力比는 약간 接近하겠으나 美軍의 撤収가 早期에 一
拳에 成해질 경우에는 南北의 戰力밸런스는 크게 무너지게 될 것
이다.

陸軍의 撤収에 이어 또다시 空軍의 撤収가 追加되면 韓國에 주
는 不安·動搖는 極히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韓半島가 현저하게 不安定化하여 紛爭으로 까지 發展할
것인가의 与否는 中·蘇의 動向에도 달려있다.

北傀는 現在 中·蘇와의 等距離外交를 基本으로 하여 兩쪽에서
가능한 限 많은 援助를 求 내고자 하고 있다.

蘇聯은 現在 国内建設과 美国에 대한 軍事力의 優位獲得등을 위해 当分間 北傀의 韓半島에 있어서의 冒險을 바라고 있지 않는 것이다.

中共도, 国内建設과 對蘇軍備에 쫓겨 있는 外에 美·中共同交正常化의 氣運이 부트이고 있기 때문에 現在로 보아서는 北傀가 南侵의 行動을 일으키는 것을 바라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와같이 中·蘇가 現在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希望하고 다른 東北亞地域에 대한 政策도 그렇게 強硬하지 않은 것은 韓國에 있는 美軍의 存在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駐韓美軍의 存在는 中·蘇의 行動을 緩和하는 作用을 하고 있다고 看做할 수 있다.

따라서 美軍의 存在가 없어진다면 韓半島는 勿論 周辺地域에 대해서도 中·蘇의 영향力擴大의 積極적인 움직임이 나올 可能性은 充分히 생각될 수 있다.

이러한 情勢에 비추어 越南崩壞直前, 北傀의 金日成이 南侵에 대해서 中共의 意向을 打診했다고 이야기되는 것과 같이, 中·蘇의 同意를 얻고자 하는 北傀의 움직임이 強化될 可能性도 否定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中·蘇의 制止로 緩和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積極적인 支援의 態度로 轉換할 可能性도 아주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美国으로서의 撤収後에 있어서의 韓半島의 不安定化防止를 위해 前述한 政治的·軍事的인 措置外에 「空軍의 有事駐屯体制」를 취함과 함께, 日本, 필리핀等 周辺基地로 부터 海·空軍으로 支援하는 態勢를 취해, 韓半島의 急激한 變化를 防止하는데

努力할 것이다.

다. 韓半島의 安全과 4強의 軍事均衡關係의 展望

1975年 4月의 劇적인 越南붕괴後, 各國이 가장 憂慮한 것은 도미노現象이 東南亞보다도 오히려 韓半島에 飛火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었다. 韓半島의 南北對立은, 戰後의 分裂國家의 解決을 求하는 最後의 課題이다. 더우기 여기에는 美·蘇·中·日의 「4 個國關係」의 利害가 얽혀있다. 월프 報告에는 다음과 같은 句節이 있다. 「東北亞의 平和와 安全에 대한 唯一한 最大의 威脅은 韓半島에 있다」 여기서 우선 問題의 焦點이 되어있는 것은 駐韓美軍이 韓半島의 安全에 대해 이행하고 있는 意義이다.

이미 너슨·독트린以來, 海外駐屯地上軍의 漸進的 撤収는 既定方針이었다. 지금 韓國에는 約 4萬2,000名의 美地上軍이 있다.

그러나 越南붕괴後 駐韓美軍의 存在는 새로운 意味를 갖게 되었다. 北傀의 金日成으로 하여금 美國과 韓國의 힘을 誤算케 하는 것과 같은 여하한 움직임도 大國의 “衝突”로 引導될 우려가 있다. 오늘날 韓國은 1950年當時와 달라서 北傀의 侵攻을 擊退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고 있는데 北의 海空·兵站面의 優越을 相殺하기 위해 美國의 이 分野에 있어서의 支援을 必要로 하고 있다.

駐韓美軍 駐屯의 將來를 생각할 경우, 朴大統領이 다음과 같이 월프使節團에 말한 것은 重要하다. 「美軍은 永久히 駐屯하지 않는다. 事實, 韓國人은 美軍이 永久히 駐屯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韓國은 지금 自主防衛를 目標로 언젠가는 美國의 海空軍을 使用함이 없이 北僞의 攻擧를 擧退할 수 있는 能力을 建設코자 하고 있다. 그것이 75年, 國會를 通過한 防衛5個年計劃의 目標이다. 따라서 이 5個年計劃이 達成되는 1980年까지는 駐韓美軍의 駐屯은 韓半島의 安定을 위해 必要한데 이 駐屯은 小規模의 水準으로 유지되고 또 第一線에 있어서의 「着手線」을 통하여 紛爭에 말려드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提案되어 있다. 具體적으로는 駐韓美軍司令官 스틸웰大將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休戰線에 주둔하는 唯一한 美軍中隊의 駐屯은 軍事的으로는 必要없다. 그리고 休戰線과 서울間에 駐屯하는 第2師團은 抑止力으로서 必要하지만 奇襲攻擧時에는 防衛的 配置로 놓여지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이 第2師團의 서울以北駐屯의 問題는 월프 使節團에 의해서도 세찬 批判을 받았으며, 서울以南으로 再配置되어야 한다는 意見이 있다. 에컨대 바디요 下院議員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休戰地帶에 現在 駐屯하고 있는 美軍은 즉시 撤収되어야 한다. 現在 이바지하고 있는 唯一한 目的은 美國이 다시 戰鬪時에 아시아의 第2의 戰爭으로 즉시 말려드는 것을 保證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美軍은 그러한 目的을 위한 人質로 되어서는 안 된다. 議會의 戰爭權限은 遠隔地의 軍司令官의 決定에 의하여 實際적으로 無効로 되어서는 안 된다.」

바디요議員은 더 나아가 如何한 形態이건 美軍에의 依存은 더 以上 正當化될 수 없으며, 繼續될 수 없다는 것을 分明히 明示해야

하며 또한 美國의 軍事介入은 더 이상 期待될 수 없으며, 有效할 수 없다는 明確한 時間表가 準備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럼즈펠드 國防長官은 76年 1月 27日, 그의 最初의 國防報告를 議會의 下院軍事委員會에 提出했는데, 委員會의 討議過程에 있어서 韓半島의 安全의 問題가 하나의 重要한 焦點이었다. 이것은 특히 3月 1日의 下院軍事委員會兵員에 관한 小委員會에 있어서의 아브라모비츠 國防省國際安全保障局·國防副次官補와 베시將軍의 冒頭陳述과 그것을 주요한 討議에서도 分明하다. 아브라모비츠는 아시아·太平洋地域担当이며 그는 太平洋地域에 있어서의 部隊의 規模·配置·經費, 아시아에 兵力을 保有하는 理由, 「太平洋基地構造」에 대해서 報告했다. 그런데 그 後의 討議에서는 東南亞情勢는 거의 言及되지 않고 주로 韓國問題로 始終했다는 것은 오늘 날의 아시아問題의 焦點이 韓半島로 옮겨 졌다는 것을 反映하고 있다.

우선 아브라모비츠는 韓半島가 아시아의 主要한 紛爭要因이라는 것 이러한 情勢에 있어서 駐韓美軍은 가까운 將來에 까지 主要한 安定·抑止의 要素라는 것, 第2師團의 移轉은 戰鬥再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 美軍撤收를 위한 두가지 條件으로서는 ① 韓國軍의 防衛能力의 發展 ②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環境의 推移에 依存하는 것, 駐屯兵力의 若干의 削減은 可能하나 完全撤收는 予測할 수 없다는 것등을 서술했다.

이어 베시 將軍은 韓國은 外部의 空海·兵站支援을 받으면 北傀의

攻撃에 대해서 防衛할 수 있다는 것, 第2步兵師團을 서울以南으로 옮기는 計劃은 75년에 檢討되었는데 그 理由는 “自動的介入”의 可能性을 적게하기 위해서인데 이 計劃은 抑止價値의 低下, 移轉費用, 새로운 土地收用に 수반되는 諸問題等으로 拒否되었다는 것을 明確히 했다. 그리고 잇달아 전개된 討議過程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諸見解가 서술되었다.

駐韓美軍削減의 이야기는 議會에서 提起되었다. 그러나 中共은 蘇聯과의 關係上, 이것을 서두르고 있지 않으며, 北傀의 南侵을 支援하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韓國은 아직 充分한 抑止力을 갖고 있지 않으나 5년이 지나면 韓國의 防衛能力은 높아지고 美國의 兵站支援을 除外하고는 自衛할 수 있게 되어 美軍撤収의 한가지 條件이 實現된다. 홀린워드大將이 「戰爭이 일어나면 즉각 第2師團을 撤収시켜, 予備로 돌린다」고 하는 서술은 第2師團이 自動的으로 介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駐韓美軍중 若干을 2年內에 減縮할 可能性을 否定하고 있지 않는데, 그것은 不幸한 시그널이 된다.

또한 議員의 중요한 駐韓美軍削減要求에 대해서 펜타곤側은 美軍의 駐屯이 日本의 防衛에 있어서 緊要하다는 日本政府의 發言을 援用하여 答弁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防衛를 주로 日本防衛와의 關聯에서 意味를 賦与하는 것은 韓半島가 오늘날의 國際社會에서 차지하는 意義의 一面만을 強調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보다 重要한 것은 極東에 있어 4強間에는 相互 密接한 關聯이 있다는 것이다.

駐韓美軍의 駐屯問題에 대해서는 75年 6月에 스텐포드戰略研究所의 카펜터가 정리하여 陸軍省에 提出된 報告：「韓國에 있어서의 美軍의 維持」가. 펜타곤側의 見解를 代弁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이 報告는 駐韓美軍의 意義와 部分的 또는 全面的 撤収의 影響과 撤収를 可能케 하는 條件을 綿密히 考察하고 있다.

아 물론 韓半島는 「글로벌」한 勢力均衡과 特別한 關聯이 있는 것이다. 韓半島는 4大國 즉 美·蘇·中·日의 直接的 利害가 交叉하는 唯一한 場所이다. 駐韓美軍의 撤収라고 하는 重要한 變化는 東北亞에 있어서의 4個國關係에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西유럽에도 影響을 미친다. 가장 重要한 作用은 美·蘇關係에 대해서인 것이다.

駐韓美軍의 主된 役割은 軍事的인 것 보다는 政治的·戰略的인 데 있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局地的 밸런스를 保存하기 위하여 우선 當장 韓國은 空軍의 不足을 補充할 美空軍力을 必要로 하며 그것은 언젠가는 軍現代化計劃에 의하여 修正되지 않으면 안 된다. 가령 美軍이 없다고 하여 南北間 밸런스가 急激히 北에 有利하게 되지는 않겠으나, 美軍이 撤収할 뿐만 아니라 또한 韓國援助를 中斷한다면 밸런스는 北에 有利하게 바뀌어질 것이다. 가령 美國이 韓國의 軍現代化計劃을 繼續 支援한다 하더라도 美軍駐屯에 具体化된 政治的 抑止力이 없다면 北傀가 武力에 의하여 韓半島의 統一을 試圖할 可能性은 대단히 높다. 그 結果 4大國의 어느

나라도 對決을 원치 않는 危機가 일어난다. 레이몽 아롱教授가 意味深長하게 지적한 「主導型에서 対応型」으로의 變身을 4大強國이 扞할 可能性이 아주 짙다.

結局, 美國만이 東北亞安定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따라서 安定을 유지하려면 지금까지 美國이 形成하여 왔던 軍事態勢를 繼續 堅持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하다. 勿論 4萬2,000名의 兵力의 實數가 모두 유지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第2步兵師團의 사단단위 名稱만이라도 그대로 殘留해야만 安定에 기여할 것이다.

今日의 韓國은 韓國戰爭前의 韓國과는 顯著히 다르다. 韓國의 急激한 国力伸張으로 보아 아무도 오늘 날 北傀가 다시 第2의 韓國戰爭과 같은 全面戰爭을 일으키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韓國軍과 美軍이 서울 또는 韓國全體를 防衛할 能力과 意思가 없다고 北傀가 誤算하면, 北傀는 다시 電擊作戰에 의하여 서울을 併合하여 「部分的 統一」을 達成하든가 아니면 「全面的 統一」의 可能性도 남겨져 있다는 誘惑을 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南北韓간의 밸런스라고 하는 見地에서는 勿論 韓半島를 둘러싼 4個國밸런스를 생각하면 駐韓美軍의 存在와 美國의 公約은 安定的 밸런스를 지탱하는 不可缺한 要素인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安全을 위한 참된 解決은 단지 「局地的 軍事밸런스」를 維持하는 것 以外에 南北兩當事者 및 周邇4個國의 平和的·外交的 어프로치에 依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美·蘇간의 데탕트와 같은 「南北韓間데탕트」를 設定하기 위한

끈질긴 努力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努力遂行의 第一步를 바로 南北對話의 再開에서 發見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第一步와 함께 韓半島의 4個國共同保障이 具體적으로 構想되어야 할 것이다.

註 記

- 1) Marxism - Leninism on War and Army (Marksizm-Leninizm) Boine i Armii) (Moscow : Voenizdat Ministerstva Oborony Soiuza SSR, 1968).
- 2) Pravda, May 16, 1973.
- 3) 崔 榮, 「蘇聯의 利害와 韓半島」, 月刊 中央, 1975年 7月号, 116面 ~ 122面
- 4) 防衛論集(東京: 日本防衛研修所), 第11卷第1号(1972年6月) 157面 ~ 172面 参照.
- 5) 崔 榮, 「美国·中共接近의 底流」, 新東亞, 1971年12月号, 78面 ~ 87面 参照.
- 6) Peter Van Ness, Revolution and Chinese Foreign Policy : Peking's Support for Wars of National Liberation (Berkele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0), pp. 244 ~ 245.

- 7) 藤井滿洲男, 「中国外交の理論的基礎」, アジア・クォーター,
第5卷第4号(1973年 10月~12月), 14面~24面.
- 8) 1975年 9月 27日 東亞日報 3面, 「拒否에 부담 甚다 提議」에서 引用.
- 9) Edward & Katzenbach, Jr.,
"Time, Space and Will : The Politico - Military
Views of Mao Tse-Tung," in Lt. Colonel
T. N. Greene (ed), The Guerrilla and How to
fight him.
(New York : Frederick A. Praeger, 1962), p.14.
- 10) 1976年 3月 Washington Post 와의 인터뷰 参照.
- 11) 1976年 6月 뉴욕에 있어서의 演說 参照.

要 約 文

「東北亞에 있어서의 4強의 軍事均衡關係」는 駐韓美軍撤収라는 急激한 事態를 맞아, 至極히 流動的일 수 밖에 없다. 그것은

向後 4年 내지 5年에 걸쳐 駐韓美軍을 撤収하겠다고 言明한 카터大統領 자신이 明確하고도 具體的인 靑写真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予測하기 이틀데 없이 困難한 問題를 풀이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論理展開를 하여 보았다.

우선, 「東北亞에 있어서의 美·蘇·中共의 戰略」을 概觀해 보았다. 이 경우 亦是 焦點은 「美國의 對東北亞戰略」이 되겠다.

다음으로 「4強의 相互力学關係」를 「韓·美·日 軍事協力關係」, 「美·中·蘇 關係에 있어서의 힘의 均衡」, 「最近의 中·蘇·北 傀協力關係現況」順으로 分析해 보았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美國」이 4強의 相互力学關係의 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核心이 되는 第4章 「駐韓美軍撤収와 4強의 軍事均衡關係의 展望」의 要旨는 다음과 같다.

韓半島는 「글로벌」한 勢力均衡에 特別한 關聯이 있다. 韓半島는 4大國 즉 美·蘇·中·日의 直接的 利害가 交叉하는 唯一한 場所이다. 駐韓美軍의 撤収라고 하는 重要한 變化는 東北亞에 있어서의 4個國關係에 影響을 미칠 뿐만 아니라 西유럽에도 影響을 미친다. 가장 重要한 作用은 美·蘇關係에 대해서이다.

駐韓美軍의 주된 役割은 軍事的인 것 보다는 政治的·戰略的인 데 있다.

韓半島에 있어서의 局地的 밸런스를 保存하기 위하여, 우선 당장 韓國은 空軍의 不足을 補充할 美空軍力을 必要로 하며, 그것은 軍現代化計劃에 의하여 언젠가는 訂正되지 않으면 안된다.

가령 美國이 韓國의 軍現代化計劃을 繼承 支援한다 하더라도 美軍駐屯에 具体화된 政治的 抑止力이 없다면, 北傀는 武力에 의하여 韓半島의 統一을 企圖할 可能性은 대단히 높다. 그 결과 4大國의 어느나라도 對決을 願치 않는 危機가 일어난다. 레이몽 아롱教授가 意味深長하게 지적한 「主權型에서 対応型」으로의 變身을 4大強國이 捫할 可能性이 아주 짙다.

結局, 美國만이 東北亞安定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따라서 安定을 維持하려면 지금까지 美國이 形成하여 왔던 軍事態勢를 계속 堅持하는 일이 가장 바람직하다. 勿論 4万2,000名의 兵力의 突數가 모두 維持되면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第2步兵師團의 師團單位名稱만이라도 그대로 殘留해야만 安定에 寄與할 것이다.

今日의 韓國은 韓國戰爭前의 韓國과는 현저히 다르다. 北傀가 第2의 韓國戰爭과 같은 全面戰을 企圖하고 싶어도 韓國의 国力이 越等히 伸張되었기 때문에 念頭를 낼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實狀이다. 하지만 韓國軍과 美軍이 서울 또는 韓國全體를 防衛할 能力과 意思가 없다고 만의 하나라도 北傀가 誤算하면, 北傀는 다시 電擊作戰에 의하여 서울을 併合하여 “部分的 統一”을 達成하던가

아니면 「全面的 統一」의 可能性도 남겨져 있다는 誘惑을 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南北韓간의 밸런스라고 하는 見地에서는 勿論 韓半島를 둘러싼 4個國밸런스를 생각하면, 駐韓美軍의 存在와 美國의 公約은 安定的 밸런스를 지탱하는 不可缺한 要素인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의 安全을 위한 妥善 解決은 단지 「局地的 軍事 밸런스」를 維持하는 것 以外에, 南北韓兩當事者 및 周邊4大強國의 平和的·外交的 어프로치에 依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美, 蘇간의 데탕트와 같은 「南北韓間 데탕트」를 設定하기 위한 끈질긴 努力이 遂行되어야 할 것이다.

이 努力의 遂行은 그 第一歩를 南北對話의 再開에서 發見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第一歩와 함께 韓半島의 4個國共同保障이 具體的으로 構想되어야 할 것이다.